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길”

강한 경제 전주 위한 ‘기업 릴레이 소통-DAY’ 시작

우범기 시장,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대표들과 기업 활성화·애로사항 등 논의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상황 점검

‘2023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작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오는 27일 ‘토리와 로기타’ 개막작을 시작으로 한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에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들이 전주를 찾는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점검을 위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영화제 진행상황을 둘러봤다.

전 차관은 영화제 주 무대인 영화의 거리와 오거리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피고 관람객들의 이동 경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의 집중 점검을 했다. 이날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다가오는 제25회를 맞아 전주국제영화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 차관은 “국내·외 영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단연히 영화제

자리를 지킨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는 국내·외 영화인들이 대거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및 전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를 ‘강한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 현장을 찾아가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우범기 시장은 10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회장 전상문, ㈜이니에스 대표) 소속 업체 대표 등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업 릴레이 소통-DAY’를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0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소속 업체 대표 등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업 릴레이 소통-DAY’를 가졌다.

우 시장은 이날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전주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기업 릴레이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바이전주 및 전주시 기업지원 시책 소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역할 논의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는 이날 전주 발전을 위해 회원 및 지인들을 통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주시에 후원했다. 또한 협의회 소속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청 및 시 산하기

관의 지역 생산제품 및 바이전주우수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인증기간 연장 등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우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상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장은 “전주시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전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고용 창출 등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제시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맞춤형 마케팅과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해서 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업이 마음 편히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주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이복 기자

대한민국 비보이 문화축제 전주서 열린다

‘제16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5월 5일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서 개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레이크 댄서이자 비보이들의 문화축제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오는 5월 5일 오후 6시 국립무형유산원 중정 야외무대에서 ‘제16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오는 5월 5일 오후 6시 국립무형유산원 중정 야외무대에서 ‘제16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약 2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영광의 우승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 총 1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게 된다. MC는 JERRY(김근서), DU LOCK(정상현)이 맡는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비보이그랑프리에서는 화려하고 흥겨운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이날 오프닝 공연에는 심사위원 5명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심사위원 쇼케이스가 준비되었으며, 게스트 특별공연으로 △m.net ‘2022 쇼미더머니’ 우승자 ‘조광일’ △2022 스트릿댄퍼이더 출연팀인 ‘프라이밍즈’ △이번 행사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팀 ‘엘레디웨이브’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특별공연이 준비돼 있다.

본 대회에 앞서 전주비보이그랑프리의 시작을 알릴 전야제 행사는 5월 4일 오후 5시 국립무형유산원 중정 무대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처음 선보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 행사가 현재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비보이 댄스 대회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주가 대한민국 비보이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비보이팀 ‘라스트포원’이 직접 기획과 홍보, 대회 운영을 맡아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비보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로는 그래피티 시연 및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 체험존이 마련되며,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기념하는 굿즈도 이벤트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브레이크 댄스 종목이 올해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회 주관 단체인 라스트포원과 협력해 브레이크 댄스(비보이, 비걸) 꿈나무를 발굴·육성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총사업비 1억을 투입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개선사업은 장승배기과 모악로의 왕벚나무 140여 그루를 대상으로 한 생육상태와 식재환경을 갖출 예정이다. 왕벚나무는 현재 공해 피해 및 노화에 따른 일부 수목의 고유수형 상실과 추가적인 병해충 피해로 인해 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완산구는 해당 노선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하고 즐기보 호를 위한 녹화마대 감기나 황토파르기, 기존 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 가로수 뿌리 주변에 통기·관수·영양공급을 위한 유공관 설치, 뿌리부근에 생리증진제 투여, 수분, 유기물 공급을 위한 멀칭 깔기, 수세 회복이 어려운 구간은 수종갱신과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목의 구조적 결함은 “피해를 입은 가로수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생태문명 도시 전 주 이미지를 구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환경청, 환경기초시설 민·관 합동 맞춤형 기술지원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관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전북지역 환경기초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요원의 전문성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사전에 예방해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수처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수 등 민간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맞춤형 현장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정책, 운영·관리, 기술진단 총 3개 분야로 최근 정책 방향 및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적용중인 공법의 효율성 제고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기술지원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경아 기자

덕진소방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주의 당부

2023년 1분기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767건 중 512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발생했다고 확인됐다. 이에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담배꽂초 하나, 작은 불씨 하나로부터 화재가 시작될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6명, 부상 18명, 재산 피해 3,511,157건, 전체화재 66.8%를 차지하며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사소한 담배꽂초 하나, 작은 불씨 하나로부터 화재가 시작될 수 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